

AUTHOR 이근삼

TITLE 종교개혁과 평신도

IN 개혁신앙

vol. 19 (October, 1979): 14-18

- ...종교개혁이 세계 교회사...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
- ...당히 크다. 해마다 10월이...
- ...되면 종교개혁에 대한 글...
- ...풀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 ...특히 우리도 개혁주의 신...
- ...앙을 전수하는 마당에 있...
- ...어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 ...없는 것이다. 본 특집을...
- ...마련함에 있어 처음의 의...
- ...도는 이 종교개혁 사상에...
- ...있어 한국에서의 말씀전...
- ...과, 성례전, 권징의 올바른...
- ...시행문제가 어떻게 올바르...
- ...게 시행되고 있는냐를 살...
- ...퍼 보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게...
- ...제된 이 글에서도 나타나...
- ...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 운...
- ...동이 미친 큰 영향력을 다...
- ...시 한번 더 생각하고 오늘...
- ...한국 교회속에 스며들어...
- ...와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
- ...를 개혁할 수 있는 작은...
- ...게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
- ...이다. ...

■ 이근삼 ■
종교개혁과 평신도

■ 백성호 ■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기

■ 편집부 ■
종교개혁 이면사

특 집

종교개혁운동과 평신도

종교개혁과 평신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입장에서 우리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고 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기 일상생활에서 소명과 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근 삼

(신학박사, 고려신학 대학장)

16세기 종교개혁은 구약과 사상과 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 왔는데 사람들이 후 관계하기는 하였으나 평신도의 입장의 변화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다.



새 관계는 전 서구세계에 중요한 적용을 가졌던 것이다.

1. 중세기 교직의 지배적 입장

교직자 아닌 자들도 생애 새로운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교직자들에게 대립적 요소가 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반교직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오히려 이 평신도 사이의 세계의 관계를 의미하는 데 이

종교 개혁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세기 평신도의 형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 중세 사상으로는 사회에 3계급이 있다고 생각했다. 곧 기도하는 교직자들, 전투하는 무사들, 그리고 노동하는 농부들이 그것이다. 가장 윗 자리에 있는 교직자들은 다른 사회에서는 구별된 것으로 사도적 노력을 가진 임직자를 통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만이 교회의 성례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적 사상을 부여하는 권위를 진다. 사람은 성례전을 통해서만 생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교직자들은 전 사회를 지배한 것이다. 영적 질서(교직자 사회)의 영향은 사회에 있어서 저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분명한 것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직에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하역의 승려(조수)로부터 법황까지를 포함하는데 그들은 다만 신적 권위와 노력을 가지는데 많고 적은 차이 뿐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원은 중세기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단체였던 것이다. 그 예로는 종교개혁 당시 사원은 영국의 실제상의 절반과 「스코틀랜드」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법황은 모든 권리 집권자 보다 우월성을 주장하고 모든 계급의 교직자들과 관리들이 그에게 첫째가는 충성을 바쳐야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특례 계급으로 일반 법정과 남세의무에서 면세를 강요하였다. 비록 그들이 교육을 권리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할지라도 중세기의 대부분은 교육을 그들의 전매품으로 독점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교직자들이 중세사회를 지배하였던가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평신도들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첫째로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영생 문제를 교직에게 의뢰하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직은 주로 교육받은 부리들로써 평신도들은 저들의 의사표시나 신분상 모든 문제에 관하여 교직들의 도움을 바랄 수 밖에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직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신앙에 관한 교훈은 거의 주지 않았으므로 평신도들은 신자로서 알아야 할 일에 비교적 무식하였다. 이것은 교직자들 자신이 대부분 무식해서 평신도들을 훈계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 그들의 사회의 관념이 평신도는 교회의 전체에 「맹목적」 신앙만 가지면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규칙적으로 성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2. 높아지는 빈대의 소리

위와같은 이론적 사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11세기부터 계속하여 교직자와 사회적 지배에 대한 반대는 점차로 커 가고 있었다. 여러 중심지에서는 대학교수가 비록 교직자 교육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평신도들도 차차 참가하게 되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 중산계급의 발전이다. 1100~1300년에 구라과의 경제적 대확장에 있어서, 이태리, 불란서, 남부 독일의 농촌 중산계급이 발전하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당시에 일어나는 군중들과 합세하여 민족주의의 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 모든 사회적 변진은 교직자들의 영적 권위에 대한 주장과 천국 길을 홀로 관할하려는 입장에 대한 변동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그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했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기 원하는 반교적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리온(Lyons)의 상인 왈도(Waldo)는 12세기에 이르러 그룹을 결성하였고, 뒤이어 여기 저기서 그런 그룹이 되어 마지막에는 14세기 말에 영국에 위크리프, 보헤미야에 후스와 그 추종자들이 나온 것이다. 화란에 "일반적 생활 형제단"은 반교직주의는 피하였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의 애호성과 기독교 교훈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평신도들이 교직들의 지배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런 경향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아는 사람들이 문에 부흥으로도 피해 갔다. 이 문에 부흥에는 부유한 상인들과 성장해 가는 학자들이 협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은 저희 부한 생활을 의지하였다. 저들은 "인간" 즉 입적으로 인하여 위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출생, 교육, 천재로 위대하게 되는 인간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선한 로마 교인이었으나 벌써 종교에 무관심 자들이었다. 이들이 평신도들에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저희의 관심을 지적 정예 또는 문화의 승려에 한정하고 일반인들은 심적 입장에 그냥 남겨 두었다.

3. 종교개혁

위와 같은 시기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온 것이다. 전 서구의 평신도들을 교회적 강요와 부도덕과 절대적 권위의 주장등을 내세우고 그것이 루터의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에 대한 직각적 반응의 결과로 더 참기 어렵게 됐다.

승려의 증보적 행동을 원치 않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기 신앙으로 승려나 승려없이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는 누구나 신에게 제사장이자, 신자는 이제 하나님과 세계에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됐다. 이제 중세 사회의 교직주의는 지나가고 만 것이다.

목사들은 승려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목자와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양 무리들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갖추어진 것이다. 임직은 초자연적 세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인식하는 뜻을 가지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가 치리 장로를 말할 때 이와 같은 변화를 밝혀 주는 것이다. 교직자와 평신도가 계급적 차이를 가졌다는 옛 구별은 이제는 없어졌다.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와 치리하는 장로(Ruling Elder)는 다 같이 기독신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교회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 내에 일정한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이다.

4. 교회 정치의 새로운 개념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일어난 평신도들 지위의 변용은 사회, 정치면을 살필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는 교회 행사의 방향은 법왕의 손에 달렸는데 그는 소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교들, 감독들, 법왕 사절등과 다른 직원들을 통치하는 분이다. 그런데 루터의 사명은 이 통제를 깨뜨리고 평신도들은 교회 기관에서 새로운 지위를 바로 차지하게 되었다.

독일 봉건사회의 귀족들과 왕자

들은 종교개혁을 지지하면서 주도적으로 나오고 루터는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였다.

그런데 칼빈주의적 지역에서는 좀 다른 형식으로 나왔다. 중산계급 배경을 가진 법률학자인 칼빈은 신약시대와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장로와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교회정치에 참여하는 조리있고 민주적인 양식을 알게 됐다. 이렇게 칼빈은 루터의 만인제사적 교리를 평신도가 교회 생활의 방향에 참여권을 준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일관시켰던 것이다.

5. 세계에 있어서의 선자의 직무

교회 내에서 평신도들의 지위가 변동되었다는 것 만이 종교개혁의 전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직에 대한 개혁주의적 해석은 「교직자」와 「평신도」와를 나누는 중간 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차이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목사들과 교회학자들은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 사이에 계급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실 목사와 교회 학자들은 교회의 일을 전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위치에 신의 소명으로 온 것

이고 거회의 공력이나 저희의 임직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 전부를 교회의 특별한 일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신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과 능력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생애 여러가지 다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모든 신자는 우리 지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직업이든지 신이 그의 섭리로 허락하신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 소명을 다할 때에 그들은 교회의 목사들과 꼭 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식점은 평신도들의 교직자에게와 일에 대한 태도에 의한 혁명을 가지고 온 것이다.

평신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일에만 자기를 섬기는 일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입장에서 우리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일해라고 하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반적 일이 새 국면을 가지게 된다. 더우기 과학적 연구 또는 교수하는 일등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물을 지으신 신의 솜씨를 보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미천한 생의 위치를 가진 사람도 자기 일상 생활에서 소명과 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종교 개혁은 중세기 생애 있어서 자연과 은혜간의 이원론을 타파하고 생의 전부를 신의 은혜의 보호 아래 다 가지고 옴으로써 교직자의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직업과 신분에 대한 새 뜻을 가지게 됐다.

그것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까닭이다. ■

